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37



Contents



※ 2026.07.03.(금) 기준(대상 기간 : 2026.06.25.~2026.07.01.)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이창훈 기후대응위 공동위원장 “미래 세대의 생존권 보장, 탄소중립 이행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 책임 다할 것”(2026.06.29)	1
- “청정에너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태백”...이상호 태백시장 공식일정 시작(2026.07.01)	1
- 추미애 경기준비위, 민선 9기 농정 청사진 발표... “AI·탄소중립으로 미래 농어업 혁신”(2026.06.26)	2
- 연꽃도 보고 탄소포인트도 받고...부여 군남지서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2026.07.01)	2
- 연제구, 동해남부선 하부 탄소중립형 ‘이끼정원’ 조성(2026.06.30)	2
- 은평구, '감탄 한 바퀴' 스탬프투어 운영...탄소중립 체험 기회 확대(2026.06.29)	3
- 포천시, 폐교 활용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센터 조성 추진(2026.06.28)	3
- 하동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2026.06.25)	3
- 안산환경재단, 찾아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호응(2026.06.26)	4
- "탄소중립은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서부평생교육원, 국토대청소 캠페인 전개(2026.06.29)	4
- 급식 잔반 없애 탄소중립 실천...화재 대피 훈련으로 안전 생활화(2026.06.25)	5
■ AI 분야	5
- 삼성-SK, 국내 반도체-AI에 4755조 투자한다(2026.06.30)	5

- 삼성 이재용 회장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로봇 투자”(2026.06.29)	5
- 수은, 첫 벤처 직접투자 퓨리오사 AI에 200억원(2026.06.30)	6
- 우상호 당선인 “SK·GS AI데이터센터 유치로 강원 전체 혜택 줄 것”(2026.06.30)	6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AI 미래인재 청년들 격려, 청년 인재 지역 정착 실현할 터 (2026.06.26)	7
- 해남군 “17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환영”...솔라시도 첨단산업 거점 도약 기대(2026.06.30)	7
- 전남도 국고 10조AI 등 미래산업 뒷받침 강위원 부지사 퇴임(2026.06.29)	8
- 구미, 산업AI 에이전트로 제조현장 AX ‘박차’(2026.06.25)	8
- 12년 만에 새 교육감 취임...“교권 회복·AI 교육 생태계” 강조(2026.07.01)	9
- 부산 지역 교사 중 절반 넘게 "수업에 AI 적용"(2026.06.30)	9
- 부산 동구, 장애인 AI 웹툰 제작 교실 운영(2026.06.27)	9
- 부산 서구, 서구형 통합돌봄 ‘AI 돌봄로봇 입양식’ 개최(2026.06.26)	10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1

▪ 탄소중립 분야 11

- 지평·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법포럼: 탄소중립 이행전략' 개최(2026.06.29)	11
- AI·로봇·탄소중립 인재 찾는다...기계연, 2026년 하반기 신규 채용 실시(2026.07.01) ·	11
- '탄소중립 권위자' 배충식 교수, KAIST 새 총장 맡는다(2026.06.30)	11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2

▪ 탄소중립 분야 12

- 내수침체·탄소중립 과제 맞은 시멘트업계 “환경보국 기업으로 도약”(2026.07.01) 12
- 현대위아·현대로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탄소중립·ESG 경영 강화(2026.07.01) 12
- 한섬, ‘서울특별시 환경상’ 건물에너지 부문 우수상...탄소중립 기여(2026.06.26) 13
-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바로 떼세요”...사람 잡는 폭염 속 영국 ‘탄소중립 단속’ 논란 (2026.06.29) 13

■ AI 분야 14

- “AI가 선별부터 출하까지” 포항제철소, 현장 주도 스마트 혁신 성과(2026.06.30) 14
- SK그룹 주도 'K AI 얼라이언스', 회원사 50개로 확대(2026.06.29) 14
- LGU+, AIDC 전력 인프라 강화...지엔씨에너지와 MOU 체결(2026.06.28) 15
- 네이버, AI 해외직구 스타트업 사줘에 투자...글로벌 커머스 인프라 확보 시동 (2026.06.25) 15
- 비씨카드, 금융 특화 생성형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2026.06.26) 16
- [로펌라운지] 지평, 'AI 인프라 센터' 출범...규제 환경 선제적 대응 나선다(2026.06.29) 16
- 반도체가 버티면 수출도 버틴다...하반기 성장판 된 AI 메모리(2026.07.01) 16
- 성과급·AI 고용 이견 못 좁혀...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 기로(2026.06.26) 17
- 시몬스, AI 안 쓴 광고 ‘Life is Comfort’ 마케팅 프론티어 대상 수상(2026.06.29) 17
- 연세대, 삼성 출신 교수진 모아 'AI 메모리 반도체' 과목 개설... "교과서 밖 진짜 반도체 배운다"(2026.06.30) 18
- 국립부경대, AI 정책·산업 전문가 초청 AX 전략 특강(2026.07.01) 18
- [월드 e 브리핑] 중국, 1~5월 피지컬AI 기업 매출 22% 증가(2026.07.01) 19
- 日 자위대, 팔란티어 AI 도입한다(2026.06.27) 19
- AI 승부는 ‘전력’이 가른다...아마존 앞서고 구글 추격(2026.06.28) 20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이창훈 기후대응위 공동위원장 “미래 세대의 생존권 보장, 탄소중립 이행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 책임 다할 것” (2026.06.29) - 이창훈 대통령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영국 런던에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기후대응위는 이번 행사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 공조 주도, 한국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의 국제사회 첫 공식 소개, 주요국 기후위원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으며,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소송에서 출발해 대통령 직속 기후대응위 출범과 상설 기후시민회의 운영으로 이어진 사법·입법·공론화 연계 모델이 국제 기후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 사례로 주목받았다는 평가 - 23일 열린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및 전기화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전기화 이니셔티브 '전기화, 지금' 공식 출범 세션에 참여해 탈탄소화와 전기화를 핵심 전략으로 하는 한국의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기술과 재원의 문제를 넘어 정책 결정과 이행 점검, 미래 세대 목소리 반영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
지자체	□ “청정에너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태백” ...이상호 태백시장 공식일정 시작(2026.07.01) - 재선에 성공한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이 7월 1일 '청정에너지로 도약하는 탄소중립 태백'을 시정구호로 내걸고 충혼탑과 산업전사위령탑, 진폐재해위령각 참배로 민선 9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 취임사에서 6475억 원 규모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과 3540억 원 규모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등 1조 원대 국가산업의 성공적 완수 의지를 표명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이 시장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35년 넘게 뚜렷한 대체산업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장성광업소 폐광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시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태백의 해묵은 과제를 하나씩 풀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민선 9기에는 청정에너지 비전 아래 4대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 - 재선 시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1조 원대 국가산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태백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국가산업을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해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도록 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이 떠나던 태백의 오랜 흐름을 바꾸고 일자리와 희망을 찾아 사람들이 돌아오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
	□ 추미애 경기준비위, 민선 9기 농정 청사진 발표… “AI·탄소중립으로 미래 농어업 혁신” (2026.06.26)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지속가능한 농촌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실현을 위해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6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과학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혁신 경기농정 실현'을 최상위 비전으로 하는 민선 9기 경기 농정의 청사진과 7대 추진계획을 발표 - 미래 농축업 기반 조성, 농어업 탄소중립 실현,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의 3대 목표 아래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경기농축산AX플랫폼 단계적 구축, 고령농과 영세농 대상 스마트 장비와 음성인식 말하는 영농비서 제공, 청년농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한 G푸드든든마켓 신설 등 세부 계획을 제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기농 생태재배장려금을 상향하고 공공급식 내 도산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축산 분뇨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경기든든 경축순환 소득마을' 모델을 선도적으로 선보이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실현을 도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연꽃도 보고 탄소포인트도 받고...부여 공남지서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2026.07.01) - 부여군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24회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열리는 공남지 축제장에 친환경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부여가 그린 내일은 탄소업슈!'를 슬로건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확산 캠페인을 전개, 종이 홍보물을 최소화한 쓰레기 없는 부스로 운영하며 QR코드 디지털 서약과 모바일 앱 가입 중심의 참여형 행사를 추진 - 방문객들은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이용, 과대포장 제품 구매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 항목을 QR코드로 서약하며 탄소중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에서 충남형 탄소중립 실천 앱 '탄소업슈' 가입을 지원받아 중고물품 나눔과 다회용컵 이용 등 17개 실천 과제 인증 시 연간 최대 10만원의 포인트 수령이 가능 -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 안내도 함께 진행하며, 부여군은 연꽃 감상과 환경 실천을 결합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축제를 찾은 관광객과 군민이 즐거운 축제와 더불어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문화가 지역에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
	□ 연제구, 동해남부선 하부 탄소중립형 '이끼정원' 조성(2026.06.30) - 부산 연제구가 부산광역시 주관 2025년도 도시녹화업무 평가에서 16개 구·군 중 최상위 성적인 대상을 수상하며 확보한 2026년도 도시녹화 상사업비 5000만 원을 활용해 동해남부선 하부 녹지대인 그린라인파크, 이른바 참그린길 일원에 탄소중립형 이끼정원을 조성했다고 발표, 평가 성과를 주민 체감형 녹색 공간으로 환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 친환경 녹화 소재인 이끼와 화살나무 등 20종의 수목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 쉼터로 조성했으며, 이끼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공기 중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데다 관리 부담이 적고 음지에서도 생육이 가능해 지속 가능한 도시녹화 소재로 주목받는다는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설명 -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이끼정원이 도시녹화업무 평가 대상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주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시녹화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연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표명,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는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의 의미를 평가
	□ 은평구, '감탄 한 바퀴' 스탬프투어 운영...탄소중립 체험 기회 확대(2026.06.29) - 서울 은평구가 주민들이 환경·생태·자원순환 시설을 직접 방문하며 탄소중립을 체험하는 참여형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감탄 한 바퀴'를 11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6월 29일 발표, 환경 거점을 탐방하며 QR코드 인증으로 스탬프를 적립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참여형 환경교육 사업으로 기획 - 투어는 봉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 환경교육센터,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 은평구 내 환경·생태·자원순환 관련 시설 8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누리집으로 신청한 뒤 각 거점의 QR코드를 스캔해 스탬프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 스탬프 5개 이상 획득자에게 환경 캐릭터 '베이비파발이' 열쇠고리를, 8개 거점 완주자에게 탄소중립 실천 키트를 함께 제공 - 은평구는 참여 독려를 위해 스탬프 적립 개수에 따라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며,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많은 주민이 가족, 친구와 함께 투어에 참여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
	□ 포천시, 폐교 활용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센터 조성 추진(2026.06.28) - 포천시가 창수면에서 폐교된 보장초등학교 부지에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교육부 주관 폐교 활용 교육청과 지방정부 공동협력사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를 미래세대와 주민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배우고 체험하는 환경교육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 - 간담회에는 창수면 주원3·4리와 오가2리 이장, 창수면과 포천시 탄소중립실천협의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시 기후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폐교가 교육과 캠페인, 체험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기후위기 대응 거점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센터가 지역 상권과 문화·관광자원을 잇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주민들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방문객 유입, 창수면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화, 마을 공동체와 함께 운영하는 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포천시는 방치된 폐교 자산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로 전환하고 인구 감소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
	□ 하동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2026.06.25) - 하동군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를 지급, 이 제도는 별도의 자격 없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에너지와 자동차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기후부, 경남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운영하고 에너지 분야는 연중 모집하는 사업 -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1포인트당 최대 2원으로 환산해 일반 가정에 연간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에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번에는 총 941가구에 약 2186만원이 지급됐으며 현금 111가구 238만원, 상품권 799가구 1884만원, 그린카드 31가구 64만원으로 구성 - 각 읍·면에서는 이달 말까지 대상자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참여는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 군은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동참과 인센티브 혜택 수혜를 위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군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 □ 안산환경재단, 찾아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호응(2026.06.26) - 안산환경재단이 운영하는 2026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환경교육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500회 교육이 조기 접수 완료되고 1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연말까지 1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6월 26일 발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환경교육으로 운영 - 교육은 학교 환경교육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년별 발달 단계를 고려해 저학년은 생물다양성 체험, 중학년은 안산 생태자원 탐색, 고학년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학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환경교육을 제공 - 재단은 일반 학생 외에도 다문화 학생 대상 동아리 교육과 특수학급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을 병행하고 학교 숲 체험, 학교 텃밭 가꾸기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환경 문제 실천 역량 제고에 집중하며, 환경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환경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환경을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를 계획 □ "탄소중립은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서부평생교육원, 국토대청소 캠페인 전개(2026.06.29) -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이 6월 26일 교육원 직원들과 함께 교육원 주변과 청지천 일원에서 2026년 국토대청소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활동으로 교육원 안팎에서 홍보와 정화 활동을 병행 - 참가자들은 교육원 내에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등 소등, 대기전력 차단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방법을 홍보하고, 청지천 주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산책로와 하천변에서 생활쓰레기와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에너지 절약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실천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 이번 활동은 환경정화와 에너지 절약 실천을 동시에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의 의미를 함께 담았다는 평가 속에 참가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교육원은 탄소중립 실천이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계획 □ 급식 잔반 없애 탄소중립 실천...화재 대피 훈련으로 안전 생활화(2026.06.25) - 울산 북구 매곡고등학교가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천 교육인 '잔반 제로! 지구를 구하는 한 끼, 탄소 줄이기 도전 잇기' 행사를 개최, 매일 먹는 한 끼 식사를 통해 지구 온도를 1.5℃ 낮추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과 급식 잔반 감축, 음식의 소중함 인식 제고를 도모 - 학교는 식생활교육관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 학교의 실제 잔반량 실태, 음식물 쓰레기와 지구온난화의 관계 등을 담은 사전 계기 교육 자료를 게시했으며, 학생들은 잔반 없이 깨끗하게 비운 식판을 촬영한 뒤 QR코드에 접속해 당일 실천한 탄소 줄이기 활동을 인증하고 탄소중립 실천 서약에 동참하는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참여 -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폰 활용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 속에,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주도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친환경 실천 문화 선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을 지속할 방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삼성-SK, 국내 반도체-AI에 4755조 투자한다(2026.06.30) - 정부가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자해 광주에 반도체 전공정 공장 4기를 짓는 등 이날 발표된 총 투자 규모는 4755조 원에 달한다는 설명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기당 약 200조 원이 드는 대형 첨단 팹을 각각 2기씩 광주 일대에 건설해 수도권 중심이던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권으로 처음 확장하며, 이재용 회장은 폭발적인 AI 관련 수요 대응을, 최태원 회장은 메모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을 배경으로 설명, 충청권에도 후공정 생산 시설 등 156조 원을 투입해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잇는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 - SK텔레콤, GS, 네이버 등은 2035년까지 1000조 원을 들여 전국에 1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하고 제조 강국 경쟁력을 살려 전 세계 퍼지컬 AI 1강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와 함께 광주 클러스터의 임기 내 완공 목표를 표명
	□ 삼성 이재용 회장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로봇 투자” (2026.06.29)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삼성의 역할'을 주제로 무대에 올라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로봇 등 퍼지컬 AI 분야에 대한 삼성의 투자를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석상에서 공개 - 이 회장은 로봇 수요가 공장 등 산업 현장뿐 아니라 가정과 식당, 병원, 요양시설 등 사회 곳곳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삼성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삼성의 로봇 관련 투자를 경북 구미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국민보고회 발표 무대에서 직접 설명, 확대되는 로봇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방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향을 제시 -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회라는 공식 석상에서 삼성의 구미 집중 투자 방침이 공개됨에 따라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등 퍼지컬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북 구미 지역의 첨단산업 기반 확충이 예상되며, 산업 현장을 넘어 가정과 식당, 병원, 요양 시설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로봇 수요에 대응하는 삼성의 퍼지컬 AI 투자 본격화를 기대
	□ 수은, 첫 벤처 직접투자 퓨리오사 AI에 200억원(2026.06.30) -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AI에 200억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결정했다고 6월 30일 발표, 설립 이래 첫 번째 벤처기업 직접투자로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에 투자금을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내 AI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 - 수은은 AI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으며, 앞서 올해 상반기 AI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에 200억원, 클라우드 기업 메가존클라우드에 200억원의 간접투자를 실행하는 등 AI 반도체부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까지 AI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전개 - 이번 투자는 지난해 개정돼 6월 24일부터 시행된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법 개정 전에는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에 한해서만 투자가 가능해 성장성이 있어도 재무 여력이 없는 벤처기업 투자가 어려웠으나 개정 이후 직접투자자와 함께 간접투자 대상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전문사 등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벤처 지원 확대를 시사
지자체	□ 우상호 당선인 “SK·GS AI데이터센터 유치로 강원 전체 혜택 줄 것” (2026.06.30) -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6월 30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GS그룹이 동해 북평제2산업단지 보유 부지에 2.4GW 규모 AI데이터센터 건립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사업 차질 우려가 불거진 SK그룹의 AI데이터센터 유치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기업이 투자 의사를 회수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변화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 - 강릉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SK그룹의 1GW급 데이터센터 수용에 필요한 변전소 부족 문제와 관련해 강릉시, 한국전력 등과 조기 착공과 완공 방안을 모색 중이며, 데이터센터 설립은 공사 과정에만 연 2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완공 후 3000명 정도가 상주해 읍면이 새로 생기는 것과 다른없는 수준의 파급효과를 전망 - 우 당선인은 100조원이 넘는 프로젝트가 강원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데이터센터 유치의 혜택이 18개 시군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모든 시군의 환영을 당부했으며, 7월 1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취임식에서 'AI데이터센터 유치 TF팀 구성'을 1호 결재로 진행할 계획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AI 미래인재 청년들 격려, 청년 인재 지역 정착 실현할 터(2026.06.26) -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6월 26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나이팅게일관에서 열린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11·12기 합동 프로젝트 발표회 및 수료식에 참석해 프로젝트 발표를 참관하고 수료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아도 고향 대구에서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발표 - 이 행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경북대학교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수료생들은 AI,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미래산업 핵심 기술을 집중 교육받고 실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아 자동차·반도체·첨단제조 등 대구·경북 주력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 핵심 인재로 기대 - 해당 과정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높은 취업 성과를 거둬 지역 AI 인재 양성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구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확대해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 강화를 추진할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해남군 “17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환영” …솔라시도 첨단산업 거점 도약 기대 (2026.06.30) - 전남 해남군이 6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가 발표한 서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에 포함된 17조 원 규모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삼성전자의 솔라시도 투자가 지역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원스톱 행정지원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즉시 착공이 가능한 200만 평 규모의 산업용지와 풍부한 전력·용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이번 데이터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 아래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중심지 도약에 대한 기대를 표명 - 앞으로 광주에서 완도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조기 완공과 KTX 연계, 마이스터고 육성, 국제학교 유치, 6600세대 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며,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미래 산업의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을 추진할 계획
	□ 전남도 국고 10조AI 등 미래산업 뒷받침 강위원 부지사 퇴임(2026.06.29) - 전라남도가 강위원 경제부지사의 6월 30일 퇴임을 알리며 재임 기간 국고 10조 원 확보와 인공지능·데이터센터·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현안 추진을 뒷받침한 성과를 소개, 지난해 6월 취임한 강 부지사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관계기관 협력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을 찾아 전남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는 평가 - 강 부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추진과 SK, 오픈 AI의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뒷받침하고 7.3GW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와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에 참여했으며, LS전선과 코스트코 코리아 등 기업 투자 유치로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여건 마련을 지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전남·광주 통합의 초대 통합추진 공동단장으로서 특별법 마련과 출범 준비 작업을 총괄하고, 행정통합 지원금 활용 방안을 시·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20조 시민공동체 포럼을 기획해 회원 1만 명의 참여를 이끌었으며, 오프라인 공론장인 청책대동회 '바란'을 5차례 열어 시·도민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
	□ 구미, 산업AI 에이전트로 제조현장 AX ‘박차’ (2026.06.25) - 구미시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산업현장 문제해결형 산업AI 에이전트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40억 8천만 원을 투입, 방산과 자동차 공장을 대상으로 물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작업 방식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는 물류 최적화 실증과 지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추진 - 사업에는 딥파인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한화시스템과 남선알미늄 자동차사업 부문이 실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실증에서는 스마트글래스로 기존 바코드 스캔 업무의 약 90%를 대체하고 AI가 최적 동선을 제시해 물품 탐색 시간을 50%까지 단축하며 물류 작업 오류율을 0.5% 이하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 - 핵심 기술인 산업AI 에이전트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 동선과 업무 방식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으로, 구미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중소·중견기업도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물류 지능화 표준 모델을 구축해 지역 산업 전반으로 AX 확산을 유도하고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도시로의 도약을 도모
	□ 12년 만에 새 교육감 취임… “교권 회복·AI 교육 생태계” 강조(2026.07.01) - 12년 만에 교육계 수장이 모두 바뀐 대전·세종·충남에서 새 교육감들이 취임과 함께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구성과 '미래형 AI 교육 생태계' 구축을 첫 포부로 발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속에 교사들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경감과 땅에 떨어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에 일제히 한목소리를 표명 -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과 치유 과정까지 교육청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체계와 함께 GPU 서버 구축, 교육과정 개발, 데이터 구축, 학습과정 실행이 동시에 운영되는 AI 교육 기반을 제시하고,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학교 자율성 확대, 학교를 지원하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강조 - 이병도 충남도교육감은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간다움이 중요하다는 K인성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등 살아있는 교육 공동체를 강조했으며, 오 교육감은 학생통합지원센터 확대와 대전형 에듀카드 도입 등 교육 복지를, 강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동반자로 참여하는 교육을 각각 제시하며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약속
지자체	□ 부산 지역 교사 중 절반 넘게 "수업에 AI 적용"(2026.06.30) -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부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19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연수 수요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6%가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수업에 활용한다는 응답은 58.8%에 그쳤다는 결과를 발표, 교원의 사용 경험과 실제 수업 활용 간 격차를 확인 - 조사에서 전체의 51.7%는 생성형 AI 활용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교육연구정보원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1900명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직무연수 '질문의 기술, 수업의 변화'를 운영할 계획 - 연수는 교원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역량 수준과 현장 요구를 반영한 단계별·수준별·학교급별 맞춤형 체계로 마련돼, 1단계는 전체 교원 대상 공통 기초 과정, 2단계는 관리자와 고경력 교사, 저경력 교사 등 맞춤형 과정, 3단계는 학교급별 심화 연수로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교원의 수업 적용 역량 제고를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 동구, 장애인 AI 웹툰 제작 교실 운영(2026.06.27) - 부산 동구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반 웹툰 제작 교육 '우리 동네 장애인 웹툰 제작 교실'을 개강,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접목한 웹툰 창작 교육으로 장애인 학습자의 문화예술 참여와 디지털 활용 능력 제고를 추진 - 교육은 웹툰의 기본 이해를 비롯해 캐릭터 구성과 스토리 기획, 디지털 드로잉,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 실습 등 실습 중심 과정으로 운영되며, 액정 태블릿과 웹툰 도서, 컬러링 콘텐츠를 갖춘 성북시장 웹툰이바구길의 동구 만화체험관에서 진행돼 지역 문화시설을 평생학습 현장으로 활용하며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제고 - 참가자들은 웹툰 창작 과정과 AI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직접 체험하며 디지털 창작 역량을 키우게 되며, 동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문화·디지털 분야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계획
	□ 부산 서구, 서구형 통합돌봄 'AI 돌봄로봇 입양식' 개최(2026.06.26) - 부산 서구가 6월 25일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어르신 20명과 생활지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형 통합돌봄 'AI 돌봄로봇 입양식'을 개최,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합돌봄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로봇을 지원해 심리·정서적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구형 통합돌봄 특화사업을 추진 - AI 돌봄로봇은 챗지피티가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으로 양방향 음성대화, 24시간 119 연계 응급안전, 약 복용 알림, 동작감지센서 기반 고독사 예방, 폭염특보 등 날씨 안내, 노래 재생 기능을 제공하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생활지원사들의 주기적 방문관리와 이상 징후 모니터링으로 돌봄공백 예방을 병행할 계획 - 공한수 서구청장은 AI 돌봄로봇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서적 안정과 심리적 외로움 해소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돌봄의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마음까지 살피는 따뜻한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시사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지평 · 한국환경공단, '기후환경법포럼: 탄소중립 이행전략' 개최(2026.06.29) -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7월 13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에서 제2회 기후환경법포럼 '탄소중립 이행전략'을 공동 개최한다고 6월 29일 발표, 국내외 기후위기 정책 방향과 기업의 기후리스크 관리 및 ESG 규제 동향을 조망하며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 -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와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축사에 이어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은 'AI로 설계하는 탄소중립 로드맵'을 주제로 백광호 한국환경공단 ESG경영부 과장이, 제2세션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미현 환경영향평가부 차장과 김의진 변호사가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 - 지평은 지난해 7월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해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 국내외 정책 분석, 기후위기 관련 분쟁 대응 등 윈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업들이 최신 정책과 규제 동향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AI·로봇·탄소중립 인재 찾는다...기계연, 2026년 하반기 신규 채용 실시(2026.07.01) - 한국기계연구원이 국가 미래 산업 고도화를 이끌 혁신 인재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전환(AI), AI로봇,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기술·행정직 신규 인재 8명을 채용하는 2026년 하반기 신규 채용을 실시, AI 전환과 탄소중립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기계공학과 AI의 융합을 선도할 전문인력 확보를 추진 - 모집 분야는 연구직 6개, 기술직 1개, 행정직 1개 분야로 연구직은 에너지 시스템용 터보기계, 기후변화 대응 극저온 기계, 지능형 로봇, 첨단바이오 시스템 및 로봇, 기계 설계·해석 AI 에이전트, 에이전틱 AI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이며, 서류 접수는 22일 오후 4시까지로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10월 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10월 19일 임용할 예정 - 류석현 원장은 기계기술에 AI를 입혀 국가 전략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AI와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의 합류를 기대했으며, 기계연은 이번 채용으로 K머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종합연구기관 비전 실현에 속도를 높이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산업 전반의 AI 확산에 기여할 계획
	□ '탄소중립 권위자' 배충식 교수, KAIST 새 총장 말한다(2026.06.30) - KAIST 이사회가 6월 29일 서울 양재산학캠퍼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친환경 에너지와 탄소중립 동력공학 분야 권위자인 배충식 기계공학과 교수를 제18대 총장으로 선임, 전 총장 퇴임 이후 1년 4개월 가까이 이어진 총장 공백이 마무리되며 교육부 장관 동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 - 배 신임 총장은 서울대 항공공학과 졸업 후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8년 KAIST 부임 이후 기계항공공학부장과 공과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연구 성과로 한국전력공사 석좌교수에 선정되고 탄소중립연료기술연구회 회장과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후분과위원장 등을 지내며 국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참여 - 세계자동차학회(SAE)에서 한국인 최초로 동력부문 최고 석학회원에 선정되고 SAE 최우수논문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앞서 2월 총장 선임 부결 이후 재공모 절차와 공개토론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낙점된 만큼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내수침체 · 탄소중립 과제 맞은 시멘트업계 “환경보국 기업으로 도약” (2026.07.01) - 한국시멘트협회가 7월 1일 한국 시멘트산업의 태동지로 꼽히는 충북 단양 소노벨 단양에서 업계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련 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 내수침체와 탄소중립 대응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순환자원 활용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업계의 주요 과제로 제시 - 행사에서는 공동 선언문 낭독과 업계 대표이사들의 서명이 진행됐으며, 선언문에는 시멘트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연구개발과 혁신 지속, 친환경 건설소재 구현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 자원재활용 시스템 도입과 전후방 산업 · 지역사회 협력 방침이 포함,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겸 한일시멘트 대표와 삼표시멘트, 쌍용C&E, 아세아시멘트 대표 등이 서명에 참여 - 전근식 회장은 기념사에서 내수 부진과 온실가스 감축 대응, 순환자원 활용을 둘러싼 유해성 논란 등을 업계의 어려움으로 언급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이나 쓰레기로 폄하해 온 부정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며, 순환자원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정맥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완수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환경보국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이 시멘트인들의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현대위아 · 현대로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탄소중립 · ESG 경영 강화(2026.07.01) - 현대위아와 현대로템이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탄소중립과 공급망 관리, 안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추진 전략을 공개, 현대위아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장 안전 보건 관리를 3대 중대 이슈로 선정하고 지난해 167개 협력사 대상 공급망 ESG 평가와 고위험 협력사 개선 활동 지원을 실시했다고 소개 - 현대위아는 지난 5월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승인을 획득하고 2030년까지 Scope 1과 2 배출량 36.5%, 2035년까지 Scope 3 배출량 31.8%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 배출량이 전년 대비 15.7% 감소하고 RE100 이행률 14.9%를 기록한 가운데 슬로바키아 법인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 - 현대로템은 창원공장 5개 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연간 약 1000MWh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계획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높였으며, 상생펀드 350억원 확대와 협력사 기술지원 719건, 대표이사 주재 안전보건회의 정례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회 신설 등 협력사 상생과 안전경영,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지속 추진
	□ 한섬, ‘서울특별시 환경상’ 건물에너지 부문 우수상 · · · 탄소중립 기여(2026.06.26) - 한섬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식에서 건물에너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6월 26일 발표, 서울시가 1997년부터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시민 · 기업 ·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통한 에코마일리지 건물 부문 평가 우수 단체에 수여 - 한섬은 2025년 한 해 에너지 절약을 통해 2023년과 2024년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비 109톤을 절감했으며 이는 소나무 약 780그루를 심었을 때의 절감 효과에 해당, 2024년 사옥 내 모든 노후 형광등을 고효율 LED 인증 제품으로 교체하고 한국전력거래소 주관 전력수요관리제도에 지속 참여해 소비 전력을 절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 에코마일리지는 건물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서울시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로, 한섬은 이번 수상이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해 온 친환경 경영 노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 바로 떼세요” …사람 잡는 폭염 속 영국 ‘탄소중립 단속’ 논란(2026.06.29) - 유럽이 섭씨 40도 안팎의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런던 일부 지방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는 런던시의 냉방 우선순위 정책을 근거로 보존구역 내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을 철거하도록 명령하고 단속을 진행, 폭염 속 주민 생활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영국 내 논란이 확산 - 해당 정책은 창문 개방과 차양 설치, 자연 환기, 선풍기 사용 등 수동 냉방을 모두 시도한 뒤에만 에어컨 같은 능동 냉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북런던 캠든의 한 주민은 에어컨 2대 철거 통보를 받은 뒤 건물에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설비가 설치된 사실을 입증하고서야 사용을 인정받았으며, 런던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 보존구역 28곳이 지정돼 있다는 설명 -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41.7도, 체코 41.1도, 폴란드 40.5도 등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영국에서도 열차 운행 차질 등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클레어 쿠틀뉴 전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 등 폭염 상황에서의 탄소중립 정책 강도와 방식을 둘러싼 논쟁 확산을 시사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AI가 선별부터 출하까지” 포항제철소, 현장 주도 스마트 혁신 성과(2026.06.30) -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AI 활용으로 생산 현장의 품질 관리와 물류 효율, 안전관리 수준을 동시에 제고, 최근 '바이브코딩'을 도입해 현장 직원들이 별도의 전문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AI와 자연어로 소통하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선별부터 출하까지 이어지는 현장 주도형 스마트 혁신을 확산 - 생산·품질 데이터를 분석해 불량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미리 선별하는 시스템으로 재검사 대상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고, 크레인 이동 경로를 자동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해 약 6개월이 예상되던 프로젝트를 6주로 단축하고 하루 출고 처리 능력을 약 12.5% 향상, 주요 구역 54곳에 AI CCTV 200대를 설치해 크레인 작업 이상과 철도 건널목 충돌 위험 등을 실시간 감지 - 포항제철소 공정품질담당 부소장은 현장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업무 방식을 스스로 혁신하고 있다며 현장의 아이디어가 기술 실현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안전과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을 표명했으며,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AI 기반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
	☐ SK그룹 주도 'K AI 얼라이언스', 회원사 50개로 확대(2026.06.29) - SK AI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AI 기업 연합체 'K AI 얼라이언스'의 회원사가 50개로 확대됐다고 6월 29일 발표, 2023년 2월 SK텔레콤 주도로 7개 기업으로 출범한 이후 AI 반도체부터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AI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연합체로 성장 - 올해부터 운영 주체가 SK텔레콤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AI위원회로 확대 개편돼 SK그룹 차원의 AI 협력 플랫폼으로 역할이 커졌으며, 중장기 운영 전략인 'K AI 얼라이언스 2.0'을 수립해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 AX 등 그룹 주요 멤버사와의 공동 기술 개발과 사업 검증, 신규 서비스 발굴, 글로벌 고객 확보 확대를 추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일본, 중동, 동남아 등 주요 지역에서 정례 프로그램을 운영해 회원사들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유영상 SK AI위원장은 AI 산업이 단일 기업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투자자와 빅테크가 가장 먼저 찾는 글로벌 AI 생태계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도모
	□ LGU+, AIDC 전력 인프라 강화...지엔씨에너지와 MOU 체결(2026.06.28) - LG유플러스가 AI데이터센터(AIDC)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서울 용산사옥에서 발전설비 전문기업 지엔씨에너지와 AIDC 전력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AI 인프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핵심 전력 설비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AIDC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으로 추진 - 최근 생성형 AI 확산으로 AIDC 건설이 급증하면서 비상 발전기 등 핵심 설비 수급이 어려워져 과거 수개월이던 공급 기간이 최대 2년 가까이 걸리는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경기 파주시에 건설 중인 AIDC에 공급되는 비상용 발전기를 포함해 향후 추진하는 AIDC의 전력 인프라 전반에 대한 양사 간 협력을 추진 - 양사는 핵심 설비의 적기 공급은 물론 향후 데이터센터 증설과 확장을 고려한 표준화 체계 구축에도 협력할 계획으로,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정전 등 돌발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안정성이 필수인 만큼 전력 설비 공급망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와 안정적인 AIDC 운영 기반 마련을 기대
	□ 네이버, AI 해외직구 스타트업 사줘에 투자...글로벌 커머스 인프라 확보 시동(2026.06.25) - 네이버 스타트업 투자 조직 디투에스에프(D2SF)가 에이전틱 인공지능 기반 크로스보더 커머스 스타트업 '사줘'에 신규 투자했다고 6월 25일 발표, 해외 직구의 복잡한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국가 간 전자상거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로 사업성을 입증한 기업이라는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사취는 배송비·관세·수수료를 약 95% 정확도로 예측하고 실행형 인공지능이 상품 정보 번역과 현지 가격 책정, 결제, 통관 등 거래 전반을 자동 처리하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인프라를 개발했으며, 일본 라쿠텐과 메루카리, 한국 번개장터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최근 6개월간 월 거래액이 약 7배 증가하고 지난해 일본우정 캐피탈로부터 7억1000만엔 규모의 투자를 유치 - 최근 해외 굿즈와 패션, 중고 상품 등을 사려는 소비자가 늘며 국가 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포쉬마크, 크림, 왈라팝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며 글로벌 커머스 사업을 확대해 온 만큼 이번 투자는 크리에이터와 지식재산권 사업자의 글로벌 판매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커머스 인프라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
민간기업	□ 비씨카드, 금융 특화 생성형 AI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2026.06.26) - 비씨카드가 연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학회(DSL)와 진행한 금융 특화 생성형 AI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월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결과 발표회를 개최, 금융에 특화된 생성형 AI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6주 동안 금융 AI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비정형 문서 활용 기술 검증을 공동 수행 - 금융 AI 응답 품질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카드 상품, 사내 FAQ 등 금융 분야 질문 기반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답변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자동 평가하는 체계를 신설했으며, 카드 상품 안내장과 이미지 자료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상품 혜택과 실적 조건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구조화하는 문서 참조형 AI 기술 검증도 진행 - 상품 안내장과 실제 상품 정보를 비교해 혜택 조건과 서비스 내용의 일치 여부를 자동 확인하는 검수 로직도 추가로 설계했으며, 임직원 업무지원 AI 등에 적용되는 생성형 AI의 답변 정확도와 신뢰도를 사전 점검하고 지속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과정에서 구축한 평가 데이터셋을 금융권 최초로 허깅페이스에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AI 연구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로펌라운지] 지평, 'AI 인프라 센터' 출범...규제 환경 선제적 대응 나선다(2026.06.29) - 법무법인 지평이 2026년 6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AI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는 'AI 인프라 센터'를 출범했다고 6월 29일 발표, AIDC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등 인공지능 인프라에 관한 포괄적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센터를 설립한 것은 지평이 최초라는 설명 - AIDC 구축·전환 사업은 부동산, 금융, 에너지, 환경, 행정 규제가 동시에 얹히는 대규모 융합형 프로젝트로 투자와 복합 인허가, 에너지 수급, 규제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지평은 IP·IT, 건설·부동산, 금융·리츠, 공공정책, 에너지, ESG,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 변호사들의 역량을 결집해 시장의 복합적 수요에 종합 대응하는 자문 체계를 마련 - 센터장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특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맡고 있는 송도영 변호사가 맡으며 최정규 IP·IT그룹장과 이소영, 김용길 변호사 등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AI 산업의 경쟁력이 개별 모델 개발을 넘어 AIDC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
	□ 반도체가 버티면 수출도 버틴다...하반기 성장판 된 AI 메모리(2026.07.01) -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 수출을 떠받칠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가 지목되는 가운데 6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기업용 SSD 수요가 꾸준히 늘어 메모리 업황이 예상보다 긴 호황 국면을 이어가며 AI 메모리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 과거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스마트폰과 PC 교체 수요가 이끌었다면 이번에는 AI 데이터센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과 AMD 신규 AI 가속기 출시가 예정되고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HBM 생산 확대가 일반 D램 공급을 줄여 DDR5 가격 강세와 기업용 SSD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동반 호황을 이끈다는 분석 - SK하이닉스는 HBM3E 공급 우위를 바탕으로 HBM4 양산을 확대하고 삼성전자도 HBM 공급 확대와 차세대 메모리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반도체가 국내 전체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수출 증가율과 무역수지, 기업 실적 개선을 이끌며 하반기 경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 성과급·AI 고용 이견 못 좁혀…현대차 노조 2년 연속 파업 기로(2026.06.26) -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하며 노조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약 87%가 파업에 찬성한 가운데 노조가 파업 일정을 지난해보다 두 달 앞당기며 교섭 주도권 선점 전략에 나섰다는 해석 속에 성과급과 AI 고용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2년 연속 파업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 - 올해 노조의 핵심 요구안은 기본급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AI·로봇 도입 관련 노동조건 보장, 정년연장, 완전 월급제 도입 등으로,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 시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AI 노동조건 협상을 핵심 쟁점으로 끌어올린 가운데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 - 함께 전해진 소식으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신규 채용 3201명 중 20대가 2560명으로 80%를 차지하며 3년 만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크래프톤의 AI 사업화 전담 본부 출범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인수합병 조직을 전면 재편하며 기술 내재화 경쟁에 나서는 등 대기업의 AI와 인수합병 투자 가속화 흐름을 시사
	□ 시몬스, AI 안 쓴 광고 ‘Life is Comfort’ 마케팅 프론티어 대상 수상(2026.06.29) - 시몬스가 6월 26일 경기 이천 시몬스 테라스에서 열린 한국마케팅학회 MAX 포럼에서 '마케팅 프론티어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발표, 생성형 AI 활용이 확산되는 광고업계 흐름과 달리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브랜드 캠페인 'LIFE IS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COMFORT'로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주목 - 마케팅 프론티어 대상은 한국마케팅학회가 1993년부터 제품 경쟁력과 시장 선도 전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사회적 책임 등 9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에 수여하는 상으로, 시몬스는 지난 4월 공개한 캠페인에서 배경음악 대신 일상 속 앰비언트 사운드를 활용한 연출로 공개 두 달이 되지 않아 누적 조회수 1억회를 돌파 - 한국마케팅학회는 '뷰티레스트 에디슨' 매트리스 판매 금액의 5%를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센터에 기부하는 '하이파이브 셰어링 프로젝트' 등 ESG 활동도 함께 평가했으며, 정연승 학회 회장은 브랜드 메시지를 시대상에 맞게 재해석한 점과 참여형 ESG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설명
대학교	□ 연세대, 삼성 출신 교수진 모아 'AI 메모리 반도체' 과목 개설... "교과서 밖 진짜 반도체 배운다"(2026.06.30) - 연세대학교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9월 4일부터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한 정규 과정인 'AI형 메모리 반도체 특론' 강의를 개설한다고 발표, 20년 이상 산업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임원 출신 산학협력 교수진이 강단에 서서 급변하는 AI 메모리 시스템의 개발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직접 전수하는 방식으로 주도 - 수업은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거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 전략부터 설계와 공정 기술까지 다루는 톱다운 방식 접근법을 채택했으며, 이정배 서울대 특임교수의 '반도체 기술과 AI 시대' 첫 강의를 시작으로 김형섭 연세대 교수 등 여러 대학에 포진한 전문가들이 HBM 설계와 공정, 최신 낸드 솔루션, DRAM 설계, 차세대 소자 개발 전략 등 산업계 주요 기술 과제를 강의 - 연세대 측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다는 학생들의 AI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 역량을 갖춘 실무형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며, 수업은 연세대 AI 반도체 혁신 연구소(CINC)와 삼성전자가 함께 후원해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 □ 국립부경대, AI 정책·산업 전문가 초청 AX 전략 특강(2026.07.01) - 인공지능 전환(AX)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국립부경대학교가 7월 10일 대연캠퍼스 공학1관 다목적강의실에서 'AX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과 AI 리더십·정책'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7월 1일 발표, 부산 AI디지털배움터 사업의 하나로 한국능률협회와 국립부경대, 비엔케이에듀케이션이 공동 운영하는 지역 기업과 미래 인재를 위한 AI 전략 공유의 장으로 마련 - 행사에는 부산지역 기업 최고경영자와 K디지털트레이닝 AI캠퍼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교육생 등 160여 명이 참석해 AI 산업 변화와 대응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며, 이재성 전 AI강국위원장이 기업의 AI 전환과 산업 변화 대응 방향을, 하정우 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국가 AI 정책 방향과 지역 산업의 성장 전략을 각각 소개 - 국립부경대는 이번 특강이 산업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고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전문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부산시 AI 교육 거점대학으로서 AI디지털배움터와 K디지털트레이닝 AI캠퍼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등 다양한 AI 교육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AI 인재 양성 거점 역할을 지속
해외	□ [월드 e 브리핑] 중국, 1~5월 피지컬AI 기업 매출 22% 증가(2026.07.01) - 중국 세무 당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국 피지컬 AI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발표, 지난해 연간 증가율 13.9%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중국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 - 피지컬 AI는 로봇에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결합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용 로봇 구매액이 1년 새 2.3배로 늘면서 연구 단계를 넘어 상업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정부도 차기 5개년 계획에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피지컬 AI 육성을 반영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등에 업은 중국 로봇 산업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평가로, 세무 데이터로 확인된 피지컬 AI 기업 매출 급증과 산업용 로봇 구매 확대는 중국 차세대 AI·로봇 산업의 상업화 진전과 국가 차원 육성 전략의 본격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을 시사
	□ 日 자위대, 팔란티어 AI 도입한다(2026.06.27) - 일본 방위성이 미국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자위대 지휘 체계에 도입하기로 결정, 자위대는 지휘관이 부대의 행동을 계획하고 명령을 내리는 군 핵심 의사결정 시스템인 지휘통제 체계에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을 도입해 그동안 사람이 종합 분석하던 정보 취합과 분석을 AI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 MSS는 위성·드론 영상, 레이더 정보, 전투기·함정 정보, 병력 위치, 기상 정보, 적 통신 정보 등 서로 다른 출처의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하고 수천 장의 영상에서 미사일 발사대와 함정, 전차 등 표적을 찾아내 검토 우선순위와 작전 전략까지 제시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 작전과 이란 전쟁에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기술 - 올해 1~2월 실시된 미·일 공동 지휘소 연습 '킨 엡지'에서 팔란티어 AI를 경험한 자위대 내부에서 조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팔란티어가 방대한 군사 정보를 취합·분석하고 작전 시나리오를 짜는 군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만큼 일본 방위 체계의 AI 전환 가속화를 시사
	□ AI 승부는 '전력' 이 가른다...아마존 앞서고 구글 추격(2026.06.28) - 아마존과 구글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전력 확보 경쟁에서 선두권을 형성,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아마존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구글이 가장 빠른 속도로 전력 용량을 늘리며 격차를 크게 좁힐 것으로 전망하고 AI 시대의 승자는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석을 제시 - 데이터 제공업체 아테리오에 따르면 아마존은 미국에서 가동 중인 자체 건설 데이터센터에서 9GW의 전력을 소비해 업계 1위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각각 최대 5GW, 메타가 4GW 수준으로, 아마존은 비용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전략과 유틸리티 기업, 전력 장비 공급업체들과의 오랜 신뢰 관계가 강점이라는 평가 - 구글은 2030년 예상 데이터센터 용량의 4분의 1을 임차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초 인터섹트 파워를 인수해 하이퍼스케일러 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전문 사내 개발 부서를 보유하는 등 청정에너지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전력 확보 방식과 속도의 차이가 AI 인프라 경쟁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